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12, 정당화, 번호 1, 역사적 정찰

© 2024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정당화, 번호 1, 역사적 정찰입니다.

우리는 구원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면서 정당화에 주의를 돌립니다.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역사적 신학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당화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바라는 내용의 개요입니다. 간략한 성경 서론, 역사적 정찰, 로마 가톨릭의 정당화 관점, 트렌트 공의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트렌트는 1500년대 중반이고, 그 교리문답은 1992년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정당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화, 체계적 공식화, 그 필요성, 그 근원, 그 기초,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수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귀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요입니다. 다시 두 가지 간단한 성경 요약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단순히 언약의 충실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대한 순응과 기준에 대한 순응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그의 의로움은 그가 악한 자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 처벌할 때 드러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움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법정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또한 법정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았지, 의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것이 정확히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언적이고, 법정적이고, 법정에 속하며, 변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둘 다입니다. 구원은 변형적입니다. 구원의 측면은 정당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지,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와 심판하시는 의가 십자가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큰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그의 진노를 지고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우리에게 대한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해 기꺼이 그 진노를 지고 ,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의 심판하시는 의, 그리고 그의 자비, 그의 구원하시는 의가 모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들에게 귀속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종종 말하듯이 그러한 믿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행은 의롭다함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의롭다함의 근거가 아니라 의롭다함의 필요한 증거 또는 열매로 기능합니다.

역사적 정찰, 로마 가톨릭의 정당화 관점, 트렌트 공의회, 1545-1563. 이 주제에는 역사 신학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논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1545년에서 1563년 사이에 이탈리아 트렌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에큐메니칼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종교 개혁의 신학과 교회의 교회적 학대에 대한 비판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로마 가톨릭 신학을 비판했지만 로마 가톨릭의 삶의 학대도 비판했습니다.

공의회는 특히 종교 개혁의 공격에 비추어 로마의 교리를 설명하고 재정의했으며, 많은 교회의 오용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개혁자들은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고 첩과 온갖 사생아를 두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로마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로마는 행동을 정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공의회는 로마의 교리를 명확히 하고 재정의했으며, 종교 개혁의 공격에 비추어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많은 교회적 오용을 바로잡았으며, 교황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많은 전 로마 추종자들이 회복된 반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를 포함한 많은 종교 개혁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만이 신학과 윤리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라는 견해입니다. 로마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권위이지만, 거룩한 전통과 함께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들은 이중 권위자이고 물론 로마의 관점에서는 모순되지 않으며 때때로 거룩한 전통은 예를 들어 연옥 교리와 같이 성경에서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는 일부 증명 텍스트를 사용했지만 너무 나빴기 때문에 대체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전통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글썄요, 루터가 말했듯이, 성경은 거룩한 전통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가지 면에서 스스로 모순되고, 더 중요한 점은 때때로 성경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성경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과 이성에 호소합니다. 생각 없이 신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경험에 호소하지만,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을 우리의 주요 규범으로, 교리와 윤리에 대한 진리의 최고 시험으로서 우리의 이성, 전통, 경험에 대한 판단에 자리 잡은 소위 규범 규범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또한 솔라 피데,

즉 칭의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16개 단락, 장이라고 불리는 공의회 첫 번째 칭의에 대한 교령은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교리를 제시했으며, 종교 개혁 신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1547년 1월에 공포된 그 법령의 요약입니다. 공의회는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그들은 동의어이지만 우리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의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 표현으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당화를 위한 준비, 첫 번째 것, 첫 번째 장, 첫 번째 요점. 어른들은 정당화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을에 자유의지는 약화되고 구부러졌습니다. 인용문이지만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는, 우리는 이전에 들었듯이, 성인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은혜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협력함으로써 다시 한 번 숨이 막힐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리고 타락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인간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그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굽혔지만, 그것을 소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행적 은혜의 개념은 선행 하고 , 선행하고, 믿음보다 앞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를 정확히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보다 먼저 옵니다.

하지만 세인트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이 은총은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그것은 특정합니다. 신은 그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물론, 아르미니우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보편적 선행적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존 웨슬리의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구원에서 인간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슬리안주의는 행위에 기반한 신학이 아니라 은혜와 신앙에 기반한 신학입니다. 저에게 질문은, 성경이 보편적인 선행적 은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르치는가입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제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셸튼을 언급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많은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적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파 형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좋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격려에 힘입어, 그는 예방적 은혜에 대한 책을 썼고, 저는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신학에 대한 좋은 설명입니다. 체계 신학에 대한 좋은 작업입니다.

그것은 복음주의 아르미니우스 체계론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따라서 내가 방금 읽은 로마에 대한 것과 비슷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찰스 피니나 노엄 가이슬러, 클라크 피녹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죄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오,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썼습니다.

구약 전체에 대한 주석, 신약 전체에 대한 주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닦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말을 타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했고, 참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논문과 논문 등을 썼지만, 교과서는 하나, 말하자면 학술서 한 권, 그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것이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손으로 준 것을 다른 손으로 빼앗았습니다. 이 보편적인 선형적 은혜 교리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타락의 영향을 한 부분, 즉 의지에서 무효화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책들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 무능력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최고의 아르미니우스 교과서는 은혜로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무능력을 확증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로마도 비슷합니다. 제가 말했듯이요. 브라이언 셸턴의 책으로 돌아가서, 그는 역사 신학에 능숙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 신학에 능숙합니다. 세상에, 그는 저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웃기려고 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체계론이지만 논리적이고, 일관되고, 옳습니다. 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핵심은 구원 교리가 작동하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은혜입니다. 그와 저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등 많은 다른 분야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좋은 책인 예방적 은혜의 약점은 성경적 기초에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요청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책을 두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한 사람은 저이고, 제 전 스승인 로버트 피터슨은 제가 이 책에서 쓴 많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가 제가 이 책을 쓰도록 격려했고 저를 공평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입니다.

트렌트는 정당화를 위한 준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의 영향을 받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 은혜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정당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고, 그 은혜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트렌트에 따르면, 칭의의 정의.

칭의는 의로움의 선언이 아닙니다. 아시나요? 그들은 직설적이지 않나요? 그들은 솔직하다는 이유로 A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단은 7장과 16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즉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의롭다함은 죄의 용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인간의 성화와 갱신도 포함합니다.

7장은 루터와 칼빈의 복음 이해를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칭의는 의로움의 선언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이라고 말할 때, 로마는 계속해서 개신교가 법적 허구를 저지른다고 공격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바티칸 2세를 지배했던 위대한 로마 가톨릭 철학 신학자 칼 레이너의 문서는 보수적인 가톨릭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서는 그의 강력한 영향력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고, 결국 바티칸 2세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권장받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도록 권장받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용주의 방향으로 이끌렸습니다.

세상에. 라너의 익명의 기독교 개념. 세상에서 신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실존적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세계 종교를 통해서라도, 신의 자비에 자신을 맡긴다.

이것은 포괄주의입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편주의를 바라는지 여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판입니다.

칼 라너는 개신교의 그리스도의 귀속된 의에 대한 교리가 시체 위에 걸친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허구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법적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진실입니다. 구원의 적용 측면의 요소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 중 두 가지는 합법적입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정당화를 다룬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십니다. 그는 그의 가족 신자들을 구세주로 두십니다. 그는 그들을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그의 아들 또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가족 법정에서입니다.

사과 없는 정당화는 법적 교리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형사부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돌리십니다. 이것은 법적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진실입니다. 게다가 시체 위에 옷을 걸친다는 개념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적용에 대한 8가지 또는 10가지 측면 중 두 가지는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두 가지인가요, 아니면 개종이 하나인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는 합법적인 것, 입양과 칭의이지만,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일부는 변형적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포함하며, 그것은 변형적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은혜의 주입이라고 부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화는 은혜의 주입이 아닙니다. 제발, 정당화가 은혜의 주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인 친구, 좋은 친구, 이웃을 만납니다. 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남자나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그를 위해 살고 싶어하지만, 당신의 선행은 결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주입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것은 변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합한다면, 우리가, 정당화는 변형적이지 않고, 선언적이고, 법정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단번에 성도로, 초기 성화의 성도로 구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솔직함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정당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의로움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저는 체계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학을 앞에 두고, 그 위에 주석과 체계신학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석 뒤에, 체계신학 앞에, 아니면 주석 뒤에, 체계신학 뒤에 두고 평가하시나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나쁘든. 트렌트에 따르면 믿음과 정당화.

우리는 인용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며 모든 의화의 기초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8 장입니다. 선행, 공로, 의화, 인용문에서 영생은 끝까지 잘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비롭게 약속된 은혜이자,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선행과 공로에 충실하게 주어질 보상으로 제안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위 둘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영생은 끝까지 잘 일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비롭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그 부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잡아. 그리고 보상으로,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선행과 공로에 충실하게 바쳐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선한 일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선한 일입니다. 칼빈은 또한 기독교 강요 3권의 어떤 장의 칭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와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위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칭의의 증가.

또 한 번 숨이 막힐 듯합니다. 정당화의 증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정당화되었고, 믿음은 선행과 협력했습니다.

그 정의, 곧 의로움을 증가시키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더욱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로 신학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선행과 협력한다고 트렌트는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받은 의로움이나 정의 안에서 증가하고, 더욱 정당화된다.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귀속된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개혁자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공로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자비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면, 나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학은 위선자나 우울한 사람을 만든다. 나는 비열한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해 신학자로서 각성되어 있다.

구원의 확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이단자들의 헛된 확신입니다. 이것들은 인용문, 이단자들의 헛된 확신, 죄가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용문,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확신을 자랑하거나 자랑하는 인용문입니다.

여전히 인용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인용문 닫기. 그러므로 인용문, 여기서 아무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는 죄인에게 주어진 확신입니다(로마서 8:1).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38, 39).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신뢰하는 죄인들의 성경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귀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따르면 바울이 시편 32편에서 인용한 죄의 귀속이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자나 여자는 복이 있도다. 범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용어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위와 별도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거기서 시편 32편을 인용하는데, 사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죄의 귀속이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긍정적 귀속은 죄에 대한 귀속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 교리를 공부할 때 알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극복하는 은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전은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에서처럼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씁니다, 요한일서 5:12 .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는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특정 슈퍼 성인에게 주신 선물로 가르쳤습니다. 요한 1서 5:12는 슈퍼 성인에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결함 있는 그리스도론과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상처받고 폭행당한 회중을 남겨둔 거짓 교사들에게 학대를 받았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의를 행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 너희가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함을 잃음.

이것은 트렌트 공의회의 문서 중 하나이며, 로마는 니케아 공의회나 칼케돈 공의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론적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당화의 상실. 인용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한 번 정당화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지만, 먼저 그들에 의해 버림받으실 때까지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인용합니다. 아무도 믿음만으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문: 칭의의 계시된 은혜는 받은 것이고, 칭의의 유감스러운 은혜는 불신앙, 즉 믿음 자체를 잃는 불신앙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죄에 의해서도 상실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대죄와 부인죄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정죄하는 죄입니다. 후자는 더 작은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모든 대죄가 정의, 의로움, 정당화의 상실을 수반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도 믿음만으로 자신을 아첨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피와 의로움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무료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정당화의 회복. 은혜로 정당화된 자들은, 만약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인용문, 아마도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정당화될 것입니다. 인용문 닫기.

여기에는 회개, 고백, 사면, 그리고 만족이 포함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찬에 의해 용서된 죄책과 함께, 일시적인 형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렌트 공의회 성명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패턴, 지침, 용서에 대한 단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심각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통회, 고백, 사면, 만족.

통회는 그 죄에 대한 내면의 심각한 슬픔과 후회입니다. 고백,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가 성직을 임명한 사제에게 사적으로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면, 같은 맥락에서 사제의 용서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만족, 만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 우리 고백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하는 것. 성모송을 많이 외우는 것,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 것,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 것, 등등.

로마는 일곱 가지 성사를 거행합니다. 하나는 참회 또는 고백입니다. 로마에 따르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용서합니다.

시간적 처벌은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중에 말하지 않더라도, 바티칸 2세의 문서는 연옥에 대한 로마의 가르침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회나 교황이 카테드라(교황의 지위)에서 말하는 성명입니다.

즉, 교황의 모든 진술은 교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에 있는 그의 공식 역할에서 선포된 교황의 진술입니다. 그러한 진술과 공의회 진술은 교리일 뿐만 아니라 교리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그것을 신실한 가톨릭 신자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 친구는 피츠버그 근처의 제네바 칼리지에서 가르쳤고, 다른 기독교 칼리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매우 로마 가톨릭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제네바는 로마 가톨릭 학생들을 받아들여 개혁 신앙과 복음주의 및 개혁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제 친구는 1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경 교사이자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은 후, "로마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나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절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연옥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 줌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골라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주의이지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어쨌든, 정당화나 의로움이나 정의는 상실될 수 있지만,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정당화. 인용문: 트렌트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신학적 이해의 전체 복합체 내에서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당화에 대한 첫 번째 법령에서 정경으로의 전환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장의 법령에서 정경으로 이동합니다.

이 가톨릭의 정당화 교리에 이어서, 이것은 인용문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고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시노드, 총회는 이러한 교리를 추가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따라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멀리해야 할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용문이며, 이것은 진술에서 교리로의 전환입니다. 방금 요약한 내용에 제시된 이 가톨릭의 정당화 교리에 이어서, 그것은 더 복잡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충실하고 확고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시노드가 이것들을 추가하고, 이러한 교리를 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따라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피해야 할지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33개 조항에서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 조항과 성명에서 공의회는 가톨릭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샘플이 있습니다.

저는 존 칼빈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신학을 여러 번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희곡이고, 나쁜 말장난입니다. 교리 9번, 만약 누군가가 신앙만으로 불경건한 사람이 정당화된다고 말하면서 정당화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협력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의지의 움직임에 의해 준비되고 처분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만 불경건한 자들이 정당화된다고 말하면서 정당화를 얻기 위해 협력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빙빙 돌지 않고, 모호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겠죠. 내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11조, 만일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유일한 귀속으로 의롭게 되거나,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들 안에 내재하는 은혜와 자애, 사랑을 제외한 죄의 유일한 사면으로 의롭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번역하면, 만일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귀속되거나 죄의 사면으로 의롭게 되며,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들에게 주입되는 은혜와 사랑을 생략한다면, 또는 은혜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루터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쁜 뜻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쾌함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는 단순히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리를 제시할 때, 그들은 전환기에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만약 당신이 종교 개혁 교리를 믿는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33번이나 말합니다.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33번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톨릭의 대문자 C 교리, 이 거룩한 공의회에 의한 칭의에 대해 이 현재 법령에 명시된,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떤 식으로든 훼손되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믿음의 진실과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두세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웃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트렌트 공의회 공식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리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현대적으로 접근하여 1992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정당화, 1번, 역사적 정찰입니다.